

[인터뷰]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유수륜 이사장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20-09-21

“기존 관행 탈피 후 건강한 LPG산업 만들어야”

전기·수소차에 내몰리는 수송용 LPG차 성장동력 필요
충전·판매등 LPG유통단계 융복합 상생협력시스템강구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유수륜 이사장

성장기를 지나 정체기에 머물고 있는 LPG산업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은 그린뉴딜을 넘어 디지털뉴딜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 및 전가차 보급 확대, 화석연료를 벗어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LPG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했던 LPG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거의 전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지 유수륜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다.

“기존 관행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LPG산업이 거듭나야지만 건전하고 발전적인 LPG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수륜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서비스체계의 시스템으로 LPG산업이 바뀔 때에만 새로운 활기를 띠고 미래 발전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륜 이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LPG충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LPG산업협회를 이끈 후 같은 해 7월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을 설립해 지금까지 조합을 이끌고 있다.

유수륜 이사장은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이란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된 것도 변하지 않는 LPG산업에 작은 변화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나타나고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비대면 사업이 미래 유망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LPG충전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로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에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상기후, 이상 감염병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살아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화하는 기후와 에너지원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순응할 수 있는 눈과 지식 그리고 선제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준비의 시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1인가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이에 걸맞게 변화해야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정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시스템과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가벼운 유리섬유를 이용한 콤포지트 소형LPG용기의 테이크아웃사업을 비롯해 충전, 판매 등 LPG유통업계가 각 사업 영역을 지키기 위해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해 왔던 모습을 버리고 힘을 합칠 때에만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대 변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수소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유수륜 이사장은 말한다.

유수륜 이사장은 “석탄과 석유 등의 소비를 줄이고 LPG와 LNG보다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과 같은 탄소 제로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에너지산업을 이끌어 왔던 기존 관행과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PG도입 기반을 통해 1980년대 설립된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는 국내에서 부족한 LPG를 중동 등 해외에서 수입해 지금까지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LPG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예전만 못해 아쉽다”고 털어놴다.

이 때문에 프로필렌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사업, LNG발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지만 충전, 판매 등 LPG업계를 위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LPG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이들 기업들이 충전, 판매 등 LPG유통업계는 물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과 대책 마련에는 여전히 외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유수륜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세일가스 생산으로 LPG공급이 확대되면서 저렴해진 LPG가격 인하 효

과를 국내 LPG소비자들을 위한 LPG가격 인하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 확대에 이용됐고 R&D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 편리한 사용과 소비확대로 연결되지 못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발전적 방향과 동반 성장의 기틀을 제대로 닦았다면 도시가스는 물론 전기 등 경쟁 연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LPG산업 환경 구축이 가능했지 않았느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에너지원의 96%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LPG면 어떨고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느냐의 시각인 셈이다.

유 이사장은 “LPG수요가 지속 감소하는 시장 상황에서 체질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선진형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인 규제완화와 같은 땀질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공급시스템 변화는 외면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PG를 수입해서 이를 산업체, 석유화학시설 등에 공급하는 굵직한 부분에 몰인하고 충전, 판매 등 LPG유통부문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이 LPG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 지역에 인수 또는 자금 투자를 통해 신설한 충전소를 갖추기보다는 민간 자영 LPG충전사업자가 수요를 발굴 및 확대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얘기다.

LPG수입 및 정유사의 직영 내지 임대충전소는 충전, 판매 등 LPG유통환경에서 발전적 모습이었다기 보다는 정보 수집과 자영충전소의 결집과 발전을 어렵게 하는 수단이었다는 지적인 셈이다.

유 이사장은 “LPG유통부문의 양극화 내지 이원화를 통해 결국 정보, 정책을 대기업이 독식, 전유물이 되도록 한 결과를 낳았으며 경쟁연료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LPG수입사가 LPG공급으로 막대한 이익을 축적했지만 LPG업계의 발전을 위한 재투자는 외면하고 충전소와 판매점 매입과 같은 몸집 불리기에 집중한 결과 LPG시장 양극화를 초래했고 중소 영세사업자인 충전, 판매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다.

결국 불공정한 LPG유통구조의 체질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LPG업계 종사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지원으로 선순환 되고 LPG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가져 LPG산업이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는 상생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전국 각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조합을 새롭게 결성하고 연합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LPG유통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수급에차질이 발생하면서 용기가격 상승으로 공급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까지 급격히 상승해 LPG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되는 것처럼 LPG산업이 발전적인 모습을 갖춰 건강하고 건전한 발전을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세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각 유통단계별로 해야 할 기능이 비록 다르지만 LPG수입 및 정유사는 도입가격 안정화와 LPG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전업계는 공급시설 투자 및 개선, 신수요 창출을, LPG판매업계는 소비자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했던 것을 앞으로는 융복합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 및 전기차 확대에 버금 끝에 내몰린 LPG자동차 충전시장, 도시가스 등과의 경쟁에 내몰린 LPG용기와 소형저장탱크 시장에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LPG업계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